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돼가나

한전, 2월께 사옥 건립 부지매입 착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규모와 파급효과가 가장 큰 한전이 오는 2월께 사옥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절차에 착수하는 등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이 포함돼 있어 아직도 '넙어야 할 산'은 있다. 특히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정보보호진흥원은 인터넷진흥원(총복)과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전 기관·혁신도시 사업 추이 = 지난해 31일 한국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의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광

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 17곳 가운데(여수로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 제외) 9곳의 이전 심의가 마무리됐다. 이전 계획이 확정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 농업연수원, 한전, 한전KDN, 한전KPS, 전파연구소, 전파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다.

현재 이전계획 미확정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컴퓨

터프로그래밍보호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8곳이다.

이미 이전 계획이 승인된 한전은 오는 2월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사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4월께 사옥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도 상반기에 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부지조성 공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1-2공구 토목공사가

30% 가량 진척되고 있으며, 전담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3공구는 올초에 발주될 예정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지원단은 이같은 공사 진척도를 감안할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보다 1년 앞서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항후 과제 =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기관에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 4곳이 포함돼 있어 혁신도시 이전 계획의 결실물이 되고 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은 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래밍보호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 공기업이다.

현재 통·폐합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래밍보호위원회는 기존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으로, 이전에는 별

1-2 공구 토목공사 30% 진척...부지 조성 활기 통·폐합 대상 문화콘텐츠진흥원 이전 여부 관심



한국전력거래소 등 이전 대상기관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혁신도시에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7천315㎡에 조성되며 17개 이전 기관 입주하는 오는 2012년까지 마무리 된다.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부지에서 열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초청 설명회'.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예산운용 3년 연속 최우수 인센티브 154억원 받아

전남도의 예산운용 성과가 3년째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남도가 3년 연속 최우수수로 선정돼 총 3년간 154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남도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면서 투자효과가 떨어지거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지원을 배제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

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온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6년 인센티브로 받은 40억 원과 2007년 인센티브 65억 원 그리고 2008년 인센티브 49억 원 등 모두 154억 원을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등 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방재정 분석평가에서도 2006년 우수도, 2007~2008년 최우수도로 선정돼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행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안정성,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로 2006년 2억 원, 2007년 10억 원을 지원받아 면 단위 공중목욕장사업을 하는데 지원됐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5조8천912억 원의 국고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초등생용 전개과정·정신 중고생용 의미에 초점

5·18 인정 첫 교과서 어떤 내용 담았나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알릴 5·18관련 교과서가 새로 출간됐다. 5·18 발생 29년만에 이뤄진 교과서 발간은 5·18의 전국화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5·18의 진실과 의미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올해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교육청 첫 인정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광주시교육청의 인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권이다. 초등학생용은 5·18 민주화운동 전개과정, 5·18 민주화운동 속에 담긴 정신, 함께 하는 5·18 등 3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단원 아래 2~3개의 소주제와 5~7개의 세부내용이 민화와 사진 등과 함께 소개돼 있다.

소주제는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도입글' 등 '생각할기'와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탐구하는 '살펴보기', 단원별 학습내용을 정리하는 '활동하기', '정리하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5·18 발생 계기, 5·18에 담겨 있는 정신을 몸글과 담판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함께하는 5·18'에서는 5·18 사적지, 국립묘지 찾아가기, 연극, 노래 해보기 등 주변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는 손쉽고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했다.

책 표지는 5·18민중항쟁주모함을 향해 달려가는 해맑은 어린이 모습에서 광주시민이 이룩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꿈을 나타냈다고 집필진은 설명했다.



5·18 민중항쟁의 진실과 의미를 담은 교과서가 올 3월 새학기부터 일선학교에 보급된다. 왼쪽이 초등학생용, 오른쪽이 중·고등학생용. <광주시 교육청 제공>

중·고등학생용 교과서는 '나와 5·18', 5·18 민주화운동, 5·18과 문화, 5·18 정신 이어받기, 아시아의 광주, 세계속의 5·18 등 5개 단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건 자체의 단순 기술보다는 사건이 가진 의미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그에 맞는 탐구활동 등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18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서울의 봄, 5·18 전개과정, 민주화운동으로 되가까지 등을 기술했으며 5월 관련 문화, 음악, 미술 등 5·18이 문화·예술 전반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봤다.

5·18에서 찾을 수 있는 민주·인권·평화 등의 사제를 언급하고 필립핀의 '피를 과일', 인도네시아의 '5월 혁명' 등 아시아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도 설명했다.

집필에 참여한 한 교사는 "5·18 민중항쟁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민주·인권·평화·공동체의 5·18 정신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른길을 찾는 것이 이 책의 큰 궁극적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정상필기자 camus@

한나라, 광주·전남 지역구마다 의원 1명씩

명예 의원 배정 호남 민심 잡기

한나라당이 새해 호남권 민심 공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의 호남 배제에 대한 피해의식이 지역민 사이에 확산되는 상황에서 올 한 해 정부의 강력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서라도 호남 민심 잡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 광주·전남도당은 1일 "명예 지역구 의원"제도에 따라 중앙당이 지역 당원협의회 의 신청을 받아 현역 의원의 선출도·연고 등을 고려해 호남지역 20개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 20명을 최종 확정, 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 지역구 의원 제도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구에 현역 의원을 1명씩 의무적으로 배정, 해당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 불모지인 호남지역 등에서 당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동구는 이근현(경남 통영·고성)의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 ▲서구 갑 심재철(안양 동안)의원이 ▲서구 을 김장수(비례대표)의원 ▲남구 고

승덕(서울 서초)의원 ▲북구 갑 이춘식(비례대표)의원 ▲북구 을 남경필(수원 팔달)의원 ▲광산 갑 정의화(부산 중·동구)의원 ▲광산 을 조문환(비례)의원 등이 '명예 지역구 의원'으로 배정됐다.

전남지역에서는 명예 포목시 민인테다 지역위원회 선출도가 높은 임태희(성남 분당)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포목시, 명예 여수시민인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여수갑 명예 지역구 의원으로 선정됐다.

여수를 지역은 김부성(부산 남구) 의원으로, 함평·영광·장성 지역은 이상현(서울 서대문)의원이 배정됐다.

이외 ▲순천 김기현(울산 남구)의원 ▲나주·화순 최구식(경남 진주)의원 ▲광양 이주영(경남 마산)의원 ▲담양·곡성·구례 이정현(비례대표)의원 ▲고흥·보성 이종구(서울 강남)의원 ▲장흥·강진·영암 이어주(비례대표)의원 ▲해남·완도·진도 임두성(비례대표)의원 ▲무안·신안 김소남(비례대표)의원 등이 다.

/김지용기자 dok2000@

의·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

진학전문교육기관 개강 1월 2일

서울유명학원 전문강사진 전격출강!

[명강사진가 10명만 있습니다]

<p>임민성 강사</p> <p>김영민 강사</p>	<p>황재현 강사</p> <p>한이수 강사</p>	<p>유기호 강사</p> <p>비움정 강사</p>
<p>임민정 강사</p> <p>박종기 강사</p>	<p>한이수 강사</p> <p>박종민 강사</p>	<p>이진 강사</p> <p>서정환 강사</p>

최수능을 달성한 예비 대학생

- ▶ 대학에 합격한 학생
- ▶ 대학에 합격한 학생
- ▶ 대학에 합격한 학생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 ▶ 입학원서 지원
- ▶ 입학원서 지원
- ▶ 입학원서 지원

MDPass 의학원

문의 263-5453

북구청 맞은편

전화 255-9119

전북대 정문 앞

서울고시학원

514-4560